

정책논단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지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 승 진

I.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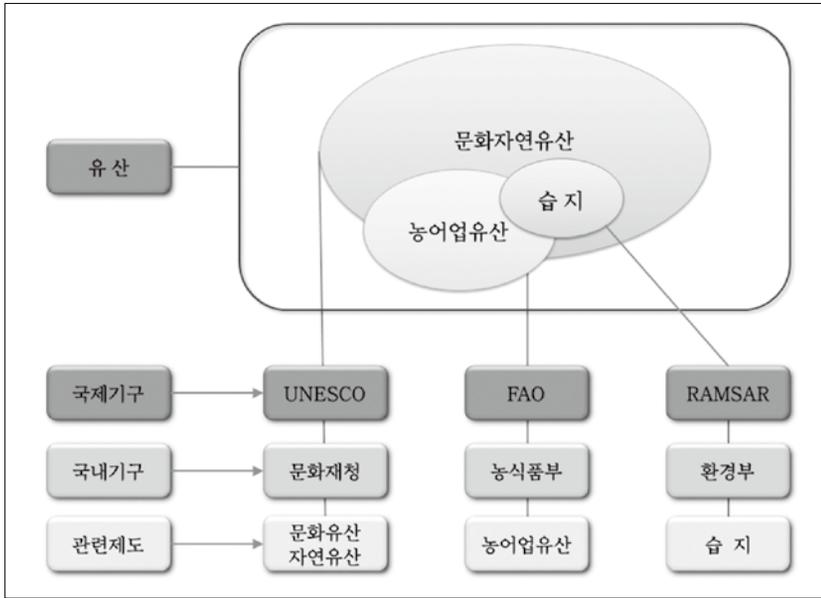
1.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전통적 농업제도, 생물다양성, 문화·경관적 다양성 등이 부적절한 개발전략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하에 2002년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GIAHS)를 도입하였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이하 세계농업유산)은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그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이용, 전통적 농업과 관련되어 형성된 문화와 경관, 생물다양성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차세대 계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의 유산제도는 ▷유네스코(UNESCO)의 세계유산(자연, 문화, 복합)과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협약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 크게 세 분류가 있다. 세계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안전한 식량공급, 지역사회 유지 등의 기능을 지닌 농업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 때문에 농업유산제도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4월 현재 12개국에 27개 지역이 GIAHS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제주밭담 농업시스템’과 ‘청산도 구들장논’이 지정되었다(중국 8, 일본 5, 인도 3, 한국 2, 필리핀 1, 아프리카 6, 남아메리카 2).

[그림 1] 국내·외 유산관련 제도 비교



자료 : 농어업유산의 이해, 202p.

[사진 1]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식 (2014. 4. 1)



2.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의 세계농업유산(GIAHS) 등재 의미

먼저,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제주밭담과 관련된 농업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그 차별성과 규모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다 농업분야에서는 최초로 FAO 세계유산까지 지정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일한 4관왕 지역이라는 쾌거를 이룬 셈이다. 이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인 것이다. 제주도민 차원에서는 지천에 깔려 있어서 그 중요성을 몰랐던 제주밭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와 더불어 자손만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 2] 전형적인 제주밭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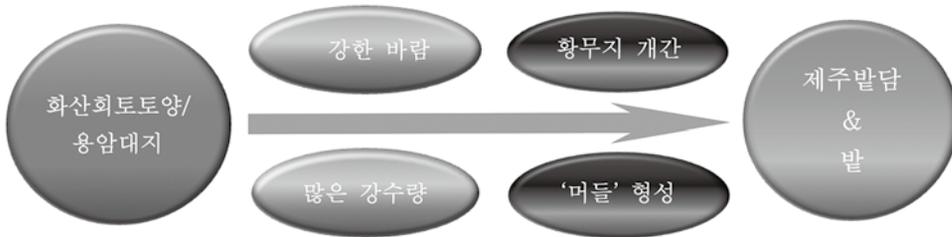
II. ‘제주밭담’의 생성과정과 구조적 특성

1. ‘제주밭담’의 생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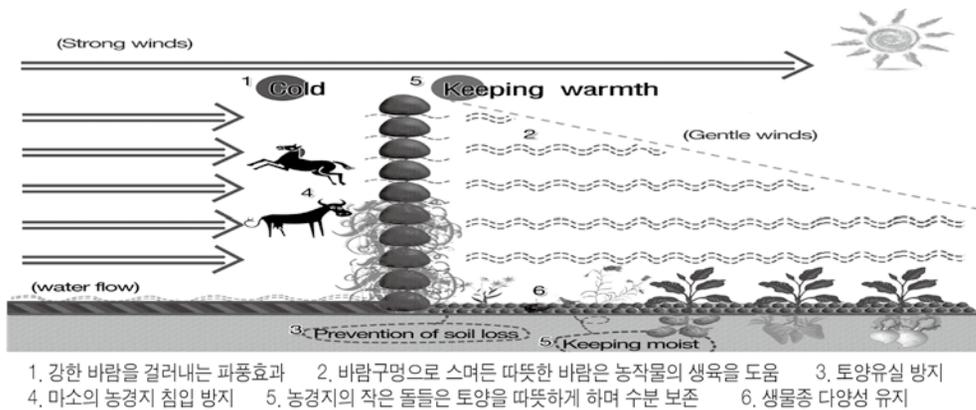
제주밭담은 개간과정에서 나온 돌을 이용, 바람과 토양관리를 위하여 조성되었다. 화산섬 제주의 농경지는 대부분 현무암 ‘돌밭’이며 개간을 위해서는 돌을 캐내어

쌓아두어야 한다. 표토층이 가벼워 비바람에 돌이 드러나므로 계속 치워야 하는데 이로 인해 돌무더기인 ‘머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돌을 활용하여 강한 바람을 막고 화산회토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 밭담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농작물과 토양 관리 기능에 경계용 기능이 추가되면서 1천여 년이 흘러 검은색 현무암으로 ‘제주밭담’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밭담은 열악한 환경에 응전하며 제주농업의 차원을 크게 바꾸어 놓은 일대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제주밭담의 생성과정



[그림 3] 제주밭담과 바람, 농작물 생육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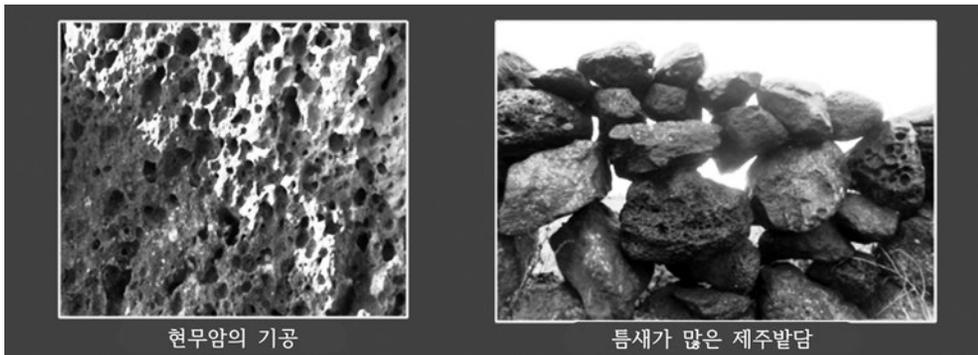
2. ‘제주밭담’의 구조적 특성

제주밭담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농경지에서 나온 돌과 인근의 돌을 이용하여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쌓아져 왔다. 제주밭담은 대부분 기공이 많은 현무암을 이용하고, 모서리가 비교적 둥근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틈새가 많이 생겨난다. 그 틈새가

바람구멍 역할을 하여 강한 바람에도 잘 견뎌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밑돌 두 개 사이에 윗돌을 올리는 형태로 층층이 축조하거나 밑돌과 윗돌 사이의 틈새가 클 경우 자갈을 이용하여 고임으로써 안정성을 획득함으로써 제주밭담은 1천여 년 넘게 지탱해온 것이다. 그리고 농경지 간에도 끊어짐이 없이 밭담을 잇대어 쌓아 축조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22,108km의 ‘흑룡만리’ 밭담이 형성되었다. 즉, 제주밭담이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어 온 이유는 현무암에 있는 기공, 유선형의 돌 모양, 돌과 돌 사이의 틈새, 돌을 쌓는 모양이나 방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사진 3] 제주밭담의 구조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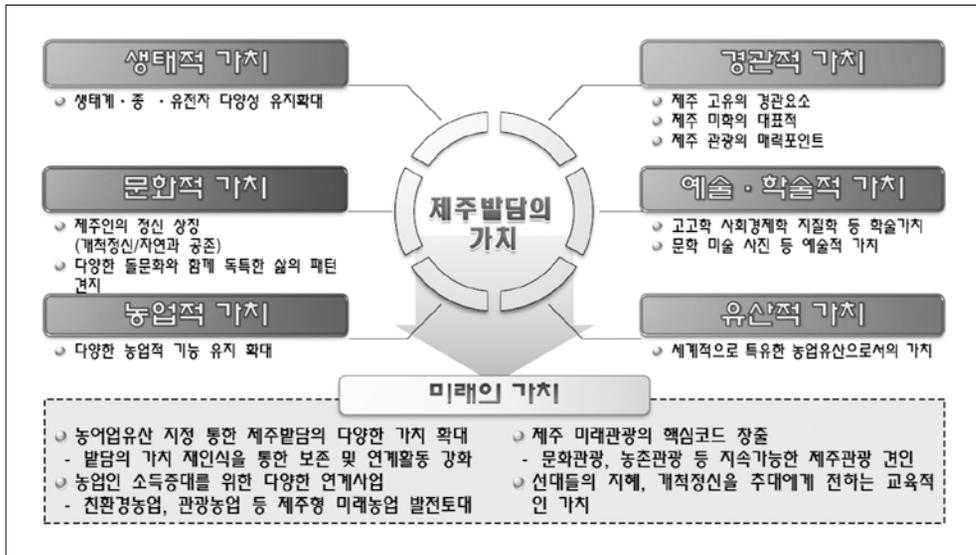
III. 제주밭담의 농업시스템적 가치

1. 제주밭담의 가치

제주밭담은 열악한 제주 농업을 지켜온 버팀목으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농업적 가치 이외에도 제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빼어난 문화경관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안가에서부터 중산간까지 제주섬을 띠처럼 두르고 있는 제주밭담은 중산간지대의 난개발을 막는 장치 역할 뿐만 아니라, 제주농업 유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제주밭담은 제주 미래관광의 핵심코드로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의 주요한 테마로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발담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보전·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제주발담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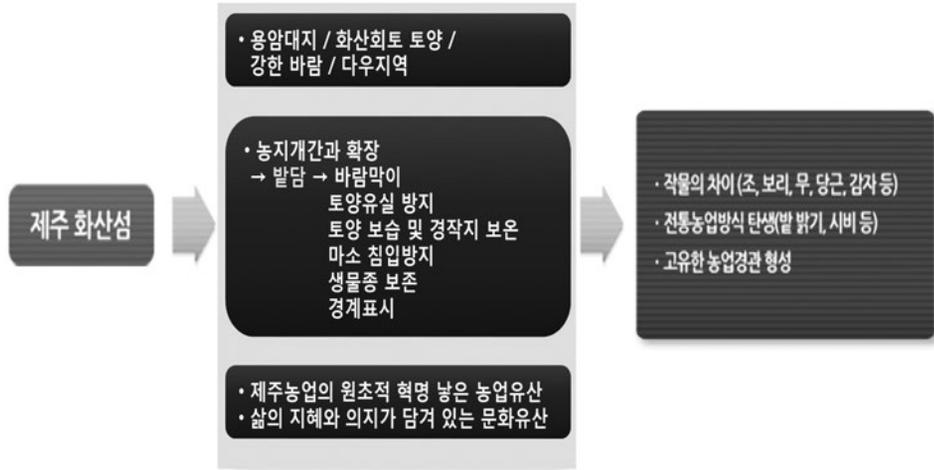
2. 농업시스템적 가치

제주발담은 제주섬의 토양과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시스템의 하나이다. 돌이 많은 제주에서는 경작을 위해 우선 돌을 골라내야 했고 그 돌을 이용해 이 섬의 강한 바람을 막고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발담을 농경지에 둘러 쌓았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멍 송송 뚫린 발담은 우선적으로 강한 바람을 걸러내 부드럽게 함으로써 농작물의 쓰러짐을 막아주고 농경지 보온작용을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비법 등 특이한 농경방식도 병행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비에 의한 표토층의 유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으며, 목축이 성행해지면서는 마소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도 했다. 농경지 소유권 개념이 자리잡아간 시기에는 경계표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농경이 가능한 토지의 명확한 구획으로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해왔으며, 제주의 수려한 경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그림 5] 제주밭담과 농업시스템



IV. 세계농업유산(GIAHS) ‘제주밭담’의 향후 과제

1. 위협요인들

(1) 농업의 기계화

밭담이 둘러진 농경지에서의 기계사용에 불편이 따르고, 특히 곡선 형태인 밭담 가까이는 기계의 접근이 어렵다.

(2) 과학영농의 도입과 재배작물의 변화

비닐하우스 시설, 화학비료의 도입 등 과학영농과 그에 따른 재배작물의 변화로 밭담 기능에 무관심이 증대하였다.

(3) 토지정리사업의 확대

도시화의 확산과 농로 확·포장 등에 따른 토지정리사업이 전도적으로 확대되면서 밭담 훼손이 증가하였다.

(4) 감귤산업의 정착

감귤산업 정착은 밭담 대신 방풍수를 심도록 했으며, 이후 방풍수를 제거하고 밭담을 현대식으로 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5) 돌 가공기술 발달에 따른 원형 훼손

토지구획정리 등에 따라 밭담이 재축조 되면서 원형을 훼손하고 틈새가 없는 현대식 밭담 축조에 따른 밭담 제거 및 원형훼손 사례가 증가하였다.

[사진 4] 훼손된 제주밭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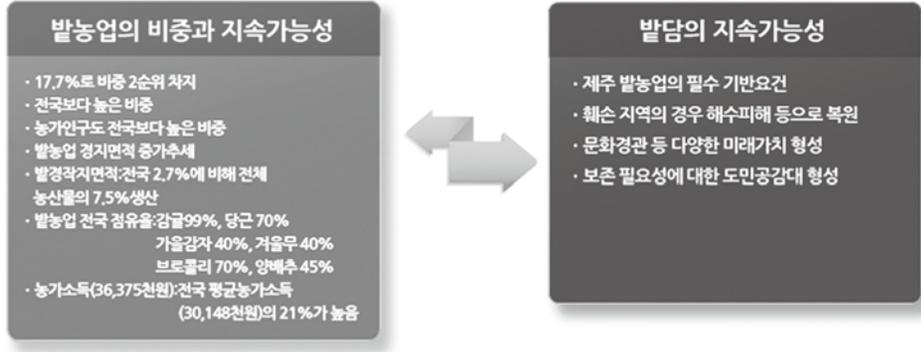
2. 제주농업과 밭담의 지속가능성

제주도는 화산섬의 토양특성으로 인해 강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사 중심 지대이다. 제주밭담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토지구획정리로 밭담을 허물었으나 이후 농작물 해수 피해 등 어려움이 나타나 다시 밭담을 쌓고 있다.

이농현상 심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의 농업은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귀농인구 증가,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농업 등은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주밭담은 제주 문화경관의 주요한 요인으로 밭담 보존에 대한 이해와 의지는 모든 도민이 공유하고 있다. 즉, 제주 밭농업과 밭담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밭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곧 그 기반요건인 밭담의 보전을 전제로 한다.

[그림 6] 제주농업과 발담의 지속가능성



3. 제주발담의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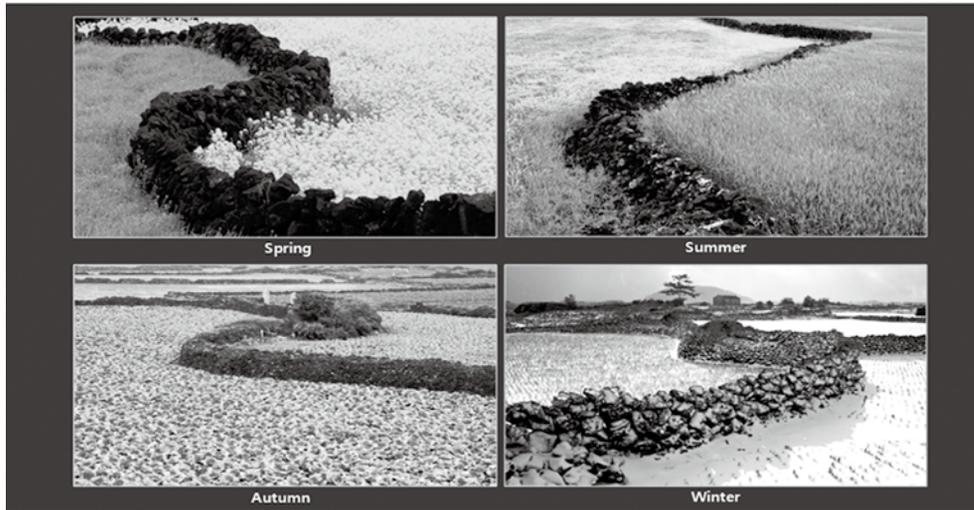
‘제주발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는 지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과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지역 선정에 이어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가일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가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제주발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협조·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세계농업유산 제주발담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과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FAO에 제출했던 동적 보전·관리계획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주발담의 지속가능시스템 구축을 위해 3대 과제를 ① 발담 가치 인식 확산, ② 자발적 참여 동기 부여 및 인센티브, ③ 제도적 지원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6대 전략인 ① 발담 보전 위한 거점 육성, ② 발담 보전 지원자원 조직화, ③ 전략적 홍보 전개, ④ 직접 지원제도 구축, ⑤ 발담 정보기반 구축, ⑥ 성과평가체계 확립 등이 중·장기적으로 체계화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해 제주발담이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5] 제주밭담의 4계



*** 참고문헌**

강승진 외 8인, “농어업유산의 이해”, 청록출판사, 2014.

강승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제주밭담의 과제, 제주발전포럼, 제주발전연구원, 2013.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제안서”, 2013. 5.

제주발전연구원, 세계농업유산 등재사업 및 학술행사 보고서(1차년도), 2014.

www.giahs.org 홈페이지